

## ‘春香傳’에 등장하는 주요男子服飾考證研究

金文子

水原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leading man's Costume in 'Chun hyangjeon'

Kim, Moon-Ja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

#### Abstract

'Chunhyangjeon' was written by an anonymous author in the mid-period of Chosun Dynasty.

The personalities of characters and the styles of dress of men in 'Chunhyangjeon' recreated their clothing to one that is more similar to the descriptions in the literature text can be described as follows.

Lee, Mongyong was a young man, but he was a man of integrity and honor. In outwear he wore 'Hat(Heulip)' and 'Dopo' and Taesahae. When he earned his title, he wore 'Pokdu' with flowers and 'Angsam(ceremonial robe)'. After he became a secret royal inspector, in order to disguised on himself as a poor man he wore worn-out 'Heuklip' and 'Dopo' and Jipsin.

Bangja who was a servant of Lee, Mongyong wore 'Beonggeoji' and 'Kwaeja' and 'Mituli'.

Byun, Hacdo was a rash and greedy character, he wore 'Oklolip' and 'Cheopli' and 'mokhwa' when he was on the way to his post.

Yeokjol was low grade official wore 'Jeonlip' and 'Cheopli' and 'Red shoulder band' and 'Mituli'.

**Key words** : Chunhyangjeon(춘향전), Heulip(흑립), Dopo(도포),  
Cheopli(첩리), Angsam(앵삼)

## I. 서론

‘춘향전’은 많은 고전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민족의식과 정서를 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작품으로 많은 복식들이 고증되었으나 원전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16세의 이몽룡을 아들의 복건과 전복을 입힌 모습으로 고증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적이 많았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그 시대와 계급 상황에 맞는 새로운 춘향전에 대한 고증 복식 연구로써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새로운 시대 의상 제작의 필요한 바탕을 마련한다는 의도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춘향전’에 대한 선행연구<sup>2)</sup>는 금기숙은 문학작품 ‘춘향전’에 나타난 복식의 종류, 복색(服色)과 미의식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은지원은 지금까지의 영화 ‘춘향전’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차이점 등을 상호 비교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 결과로 직접적으로 의상고증을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은 ‘춘향전’에 표현된 주요 남자 등장인물들의 복식 형태를 원문을 더욱 충실히 고찰하여 고증하는데 있다. 즉, 영. 정조이후-조선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잡고 사설에 등장하는 복식 표현 문구만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당시 고기록과 그림, 유물들을 참고로 하여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남자 복식만을 고증하여 앞으로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대표적인 이본(異本)인 완판(完板) 33장본 ‘열녀춘향수절사’와 경판(京板) 17장본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남자 복식들의 용어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시대 상황과 계급, 때와 장소에 따르는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고증하여 직접 도판을 그려서 형태, 구성, 색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원문에 등장하는 복식 용어중 소재에 대한 것은 주로 대신하였으며 또한 참고로 삼은 유물들에 대한 것

은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관계로 상세한 고찰은 하지 않고 고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 II. ‘춘향전’의 시대 배경 및 남자 복식

### 1. ‘춘향전’ 시대 배경 및 줄거리

‘춘향전’의 시대적 배경은 경판본(京板本)에 인조조로 되어 있고 완판본(完板本)에는 숙종대왕 즉위초라고 되어 있다.<sup>3)</sup>

‘춘향전’은 처음 판소리로 생성되어 나중에 소설로 정착되었고, 다시 원각사(圓覺社)이후에 창극(唱劇)이 되었으며, 그 뒤에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표현되어 왔던 것이다. ‘춘향전’은 원래 판소리가기 때문에 민중과 함께 광대(廣大)에 의하여 불리었다. 따라서 판소리가 되기 전에 이미 민간 설화로 유전한 여러 설화가 집성되어 춘향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숙종(肅宗)이전의 연대를 가진 야담(野談)에 춘향전의 일부와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암행어사설화(暗行御史說話)·영정설화(艷情說話)등이 20여 종이나 된다. 그러므로 ‘춘향전’은 이와 같은 설화들이 가진 종합적인 러브 스토리를 하나로 응집시켜, 광대 시창자(始創者)가 이를 구성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춘향전의 줄거리는 여러 종의 ‘춘향전’ 사본에서는 대개 같으나 그 세목이 사뭇 달라지는데, 이것은 ‘춘향전’이 판소리로, 판소리라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후 계속되는 많은 이본(異本) ‘춘향전’들로 미루어 볼 때 작품의 배경이 되고 영향을 준 시대는 영정조 시대로 보여진다.

춘향의 신분도 애초에는 기생으로부터, 성참판(成參判)이나 성천총(成千總)의 서녀(庶女)로 되기도 하였으니 이는 ‘춘향전’이 양반들의 구미에 맞게 변질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춘향과 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 특권계급

의 전횡(專橫)을 대표하는 변학도와 이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 특히 변학도에 항거하여 이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모습은 모순을 내포하면서도 상상을 희구하는 조선 후기민중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신분적 제약과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정면적 도전과 충돌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민중의 한은 더욱 구체화되고 깊어갔다.<sup>4)</sup> 이 도령이 극적으로 내려와 변학도를 응징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민중의 꿈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아의 신장과 꿈의 형상이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갈구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받았고, 춘향의 수절이 당시의 봉건윤리에도 합치되었기 때문에 양반이나 하층민 누구에게나 영합되는 국민 문학적 폭을 지니고 있어 민중 최고의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춘향전’의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원부사(南原府使)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退妓) 월매(月梅)의 외동딸 춘향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도령의 아버지가 서울로 옮기게 되어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때, 새로 부임한 남원부사 변학도(卞學道)는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향을 옥에 가두고 고초를 받게 하여 사경(死境)에 빠뜨린다. 서울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부사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쾌하게 어사 출토폰을 하여 부사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해내어 백년을 해로한다는 이야기이다.”

## 2. ‘춘향전’ 남자 복식

먼저 ‘춘향전’에 등장하는 남자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인 이몽룡의 복식은 광한루로 외출하는 상황의 외출복으로의 편복, 과거급제 시 착

용한 앵삼, 암행어사가 된 후, 남원으로 내려오는 상황으로 일부러 허름한 복장의 변장 어사복을 고증하였다. 그리고 방자는 광한루로 이몽룡과 함께 외출 시의 복장, 변학도는 남원의 신관사또로 부임되어 상황의 복장과 역할은 암행어사와 함께 출두하는 상황의 복장을 고증하였다.

### 1) 이몽룡의 편복

#### (1) 원문 자료

다음은 ‘춘향전’의 원문에서 발췌한 등장인물의 복식에 관한 내용과 설명이다.

“도련님 거동 보소. 옥안선풍(玉顔仙風) 고운 얼굴 전방같은 채머리 곱게 빗어 밀기름에 잠재워 궁초대기<sup>β)</sup> 석홍<sup>β)</sup> 물려 맵시 있게 잡아 딸고 성천수주<sup>γ)</sup> 점동베 세백자<sup>β)</sup> 상침 바지 극상세목<sup>β)</sup> 검버선에 남감사<sup>10)</sup> 대님 치고 육사단<sup>11)</sup> 검배자 밀화<sup>12)</sup> 단추 달아 입고 통행전을 무릎 아래 년지시 매고 영초단<sup>13)</sup> 허리띠 모초단<sup>14)</sup> 도리냥을 당팔사<sup>15)</sup> 갖은 매들 고를 내어 년지시 매고 쌍문초<sup>16)</sup> 긴 동정 중치막에 도포 받쳐 흑사(黑絲) 띠를 흉중에 둘러 매고 육분 당혜 끌면서...”

원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몽룡의 외출복은 중추막(: 중치막)을 받침옷으로 입고 곁에 도포를 입고 흑사띠(:세조대)를 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조의 양반 자제들은 10세 전후의 이른 나이에 관례를 올리기 때문에 머리를 상투를 틀고 초립이나 흑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으나 원전에서는 일반 상사람들과 같이 땀은 머리로 표현하고 있어 머리 모양과 의복의 모양이 안 맞게 표현되고 있다. 이 경우 이몽룡의 나이가 16세로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상투를 틀고 흑립(갓)을 쓴 모습으로 고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사설과 다른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김홍

도의 서당<그림 1>그림에서 훈장 오른편 첫번째 앉아 있는 인물이나 평안감사환영도의 관례 후 소년을 그린 그림<그림2>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변 인물들과 비슷한 동안으로 보아 관례를 올린 후의 초립동을 지난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양반집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지아래 통행전(筒行纏)을 착용했다는 사실에서 '통행전'은 아래에 귀가 달리지 않은 예사 행전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신고 있는 신에 대한 묘사에서 '육분당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고급신인 가죽신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써 원래 '당혜'는 여자용 신의 명칭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양반 남자들의 신인 태사혜를 나타낸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2) 복식 자료



<그림 1> 김홍도 서당

(가) 흑립(黑笠)

조선시대를 이어 내려온 대표적인 관모로, 일반적으로 갓이라고 하면 곧 흑립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들어 입제가 다양하게 발전하는 중에 모체(대우)와 입첨(양태)의 구별이 분명한 평양자 계통에서 생겨난 것으로, 위가 좁은 원통형의 대우와 양태로 우긋한 양태가 특징이다. 본

래는 말총으로 만든 칠흑이 본색이지만, 용도에 따라 그 색깔과 소재를 달리하여, 본래의 마이립 이외에 진사립, 음양립, 포립, 죽자모립 등 종류가 많았고 대우가 세장해지면서 양태가 과대해진 것이 조선 중후기의 경향이다.<sup>17)</sup>



<그림 2> 관례 소년의 복식 -평안감사환영도

(나) 도포(道袍)·세조대(細條帶)



<그림 3> 도포 - 이대박물관

도포<그림 3>는 조선조 중기 이후 사대부가 항상 착용하던 겹옷으로, 길복으로는 청색, 상복에는 백색으로 입었다. 기본 모양은 직령에 광수, 쇄과 무가 있으며, 뒤에 도포의 가장 큰

특징인 뒷자락이 따로 부착되어 있다. 겉자락과 수구에 다른 색으로 단 처리를 했으며 뒷길에는 안쪽에 허리선까지 내려온 등바대와 양옆무에 연결된 안자락이 있다. 안자락은 좌우 두 자락으로 구성되는데, 두 자락이 한가운데서 약간 겹치게 붙이면서 봉합은 하지 않아 뒤 트임이 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여느 뒤트임 포처럼 걸을 때와 말에 오를 때에 편하되, 뒤 트임이 벌어져 하의가 보이는 것은 뒷자락으로 가리게 된다.



<그림 4> 세조대 - 숙대박물관

도포위에 두른 세조대<그림 4>는 원래 겉옷에 착용하던 실을 엮어 끈을 짠 것으로 광다화·각대·요대 등과 함께 면복이나 도포, 전복 등에 착용하였고 광다화보다 가늘고 좁으므로 세조대라 한다. 품계에 따라 빛깔을 달리하였다. 당상관은 훈색 또는 자색을, 당하관은 청색 또는 녹색을, 그 사이에도 많은 색이 있어 제도를 더나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8)</sup>

(다) 바지·행전

남자바지<그림 5>는 '고(袴)'라고도 하며 고려 시대와 큰 차이가 없이 전해져왔다. 솜바지·누비바지(굵게, 가늘게 누빈 것)·겹바지·홀바지(고의)가 있고, 흰빛의 견·면포가 사용되었으며, 허리띠·대님은 다른 색의 다른 감으로 만들었다.

남자 바지 아래부위에는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행전<그림 6>을 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전은 남자들이 바지를 가뿐하게 하려고 발목을 둘러매는 물건으로, 조선시대 양 반층에

서는 예복을 갖출 때나 외출 시에 반드시 행전을 매야 했다.



<그림 5> 남자 바지 - 대구박물관



<그림 6> 행전 - 단국대박물관

『연행록선집』에서는 "두 다리에 모두 사폭(斜幅)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행전이다." (『燕行錄選集』 赴燕日記 主見諸事 衣冠)라고 하였으며, 『해행총재』에서는 말을 끄는 從人은 무명옷을 입고 행전을 둘러맸다고 했다.(『燕行摠載』 奉使日本時間見錄 戊辰 5月2日)<sup>19)</sup>

(라) 태사혜(太史鞋)



<그림 7> 태사혜 - 숙대박물관

태사혜<그림7>는 남자용 신발로, 사대부가 편복에 신던 마른신이다. 신을 올릴 때 왼손으로 받들고 오른손으로 밀 돌리는 밀랍을 칠한 실로 꿰맸다. 신고와 뒤축에 선문(線文)을 돌려 박았다.

2) 이몽룡의 앵삼

(1) 원문 자료

“ 머리에는 임금님이 내려주신 종이꽃이요,  
몸에는 앵삼이며 허리에는 학대(鶴帶)로  
다.....수의, 마패, 유척을 내주시니 전하  
께 하직하고 본덕으로 나갈 적에 칠관풍채는  
산속의 맹호와 같은지라...”

여기에서 종이꽃은 앵삼에 쓰는 복두에 꽂는 어사화를 말하며 앵삼을 입고 허리에 학대를 하고 있는 장원급제자의 복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복식 자료

(가) 앵삼(鶯衫)

앵삼<그림 8>은 조선시대 유생(儒生)들이 과거급제와 관례(冠禮)의 삼가(三加) 때 착용한 예복이다. 연두색 겉감에 황색 안을 넣어 만들

며 깃은 곡령(曲領)이고, 깃·도련·소매끝(袖口)에 검은색으로 선을 두른 포(袍)이다. 양쪽 무역시 트고 검정색 선을 돌렸다. 앵삼은 중국의 난상(襪衫)에서 유래, 변천하여 조선 말기에 옷색이 꾀꼬리색으로 변하면서 명칭도 앵삼이라 불리게 되었다. 유생들이 과거 급제 시에 앵삼을 입고 임금이 내려준 어사화(御賜花)를 꽂고 삼일유가(三日遊街)하며 축복받기도 하였다.

(나) 어사화(御賜花)

어사화<그림 9>는 문무관 급제시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으로 복두 뒤에 꽂게 하였다. <용재총화>에 따르면 참대오리 2개를 종이로 감고 비틀어 꼬아서 군데군데에 다홍색·보라색, 노란색의 종이꽃을 꿰었다고 한다.<sup>20)</sup> 세 줄기를 한 조로 하여 복두 뒤 중앙에 두 가지를 꽂았다.

(다) 학대(鶴帶)

학대<그림 10>는 학정대(鶴頂帶)라고도 부르며 관복에 띠는 대로 과판과 대구를 원형이나 방형의 황색 서각 바탕에 학의 정수리의 붉은색을 상징하는 적색 화각으로 장식한 대이다. 17세기초 정3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인물의 초상화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말기 유물에 다수 남아 있다.<sup>21)</sup>



<그림 8> 앵삼  
- 단국대박물관



<그림 9> 어사화  
- 단국대박물관



<그림 10> 학대  
- 고대박물관

(라) 목화(木靴)



<그림 11> 목화 - 상명대 박물관

목화<그림 11>는 왕이나 문무관리들이 관복에 신던 신으로 신목이 길어 반장화같이 생긴 것이다. 그 형태나 장식에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하였다. 가죽은 주로 녹피를 사용하는데 후에는 전(氈)으로 내장하고 외부에는 선을 둘러 장식하고 있다.<sup>22)</sup>

3) 이몽룡의 변장 어사복

(1) 원문 자료

“ 어사또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술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흰 파립에 벌이줄<sup>23)</sup> 총총 매어 초사<sup>24)</sup> 갓끈 달아 쓰고 당<sup>25)</sup>만 남은 흰 망간<sup>26)</sup>에 갓풀관자<sup>27)</sup> 노끈당줄 달아 쓰고 의뭉하게 흰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흰 부채에 술방울 선추<sup>28)</sup> 달아 일광을 가리고 내려올 제...”

모자 없는 흰 파립 이라함은 대우가 거의 없고 양태도 거의 찢어진 흑립을 말함이며, 여기서 열기설기 줄로 맨 갓을 갓끈도 품질이 낮은 끈으로만 매고 있고 흰 도복은 낡은 도포를 표현한 것이며 여기에 술방울 선추를 매단 부채를 든 것은 가난한 선비로 변장한 이몽룡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복식 자료

(가) 갓끈

원래는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 구실을 하던 부분인데, 차츰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구실도 겸하게 되었다. 갓끈에 이용되는 재료에는 형겅, 옥, 마노, 호박, 산호, 금패, 밀화, 수정, 대나무 등이 있다. 갓끈은 갓을 쓰면 일단 턱 밑에서 고정시킨 뒤 내려뜨리지만, 보석이나 대나무로 만든 것은 그냥 장식으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뜨리고 따로 검은 형겅 끈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나) 선초(扇貂)

부채의 고리나 자루에 다는 장식품으로 재료는 나무에 조각한 것과 말총으로 엮은 것, 비취, 호박, 옥, 뿔, 금, 은 등으로 다양하다. 안에 향을 넣어 좋은 냄새를 풍기게 하기도 하였고 이쑤시개나 귀이개를 넣는 초혜집을 달기도 하였다.

4) 방자복; 이몽룡과 함께 광한루로 외출하는 상황의 복장

(1) 원문 자료

“ 방자는 새로 깨끗이 빨아 입은 갑사쾌자의 남색 앞자락을 슬슬 만지며 웃는다. 도령은 새삼스럽게 미끈해진 방자의 모습을 보았다. 향교 뒤 마을 (중략) 룡날 메투리에 새하얀 버선을 신었고 머리엔 총각의 길게 뿔은 머리태를 둘둘 말아 올린 우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그우에 털범거지를 엇비슷이 눌러 썼는데 붉은 상모가 건들거린다...”

이몽룡을 따라 나서는 방자복에 대한 원문의 표현은 관노복중 통인복<그림 12><sup>29)</sup>과 비슷한



<그림 12> 통인 복식  
- 평안감사 환영도



<그림 14> 께자  
-해군사관학교



<그림 13> 뵤거지- 이대박물관



<그림 15> 미투리 - 이대박물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문에서는 께자를 입고 미투리를 착용하고 머리에 뵤거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붉은 상모가 건들거린다는 것은 과장된 모습으로 하인들의 뵤거지는 상모가 없는 상태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모가 없는 뵤거지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 (2) 복식 자료

### (가) 뵤거지

뵤거지<그림 13>는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든 담으로 지붕을 만들고 여기에 양태를 달아 만드는데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며, 전립 중에서 하례·여정이 쓰는 것을 말한다. 대개 흑의와 병용하거나 전령복에 사용하였는데, 아무 장식도 없는 만듭새로 재료는 돼지털을 사용하였다.<sup>30)</sup>

### (나) 께자

께자<그림 14>는 군복의 일종으로 왕 이하 서민이나 하급군속·조례(誓隸) 등이 겉옷 위에 덧입는 옷이다. 께자는 후대에 와서 담호, 전복

과 혼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착용할 경우에 께자라고 불리운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대금에 둥근 옷깃이며 무가 있고 옆 트임과 뒷 트임이 있다

### (다) 미투리

미투리<그림 15>는 서민용 신발로, 지역에 따라 무커리, 미커리, 미쿠리, 메토리, 메투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흔히 날여섯에 앞의 총을 50~60개를 세워 매우 촘촘하게 삼는다. 가죽을 잘라 만든 가죽 미투리, 종이를 꼬아 만든 지총 미투리도 있었다.

## 5) 변학도 복; 도임차로 내려올 때 행차복

### (1) 원문 자료

“이때 신관사또 출행 날을 급히 하여 도임차로 내려올 때 위의(威儀) 도장 할시고. 구름 같은 별연(別輦 : 재왕이 탈 輦과 다르게 만든 수레)에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청장을 띠 벌리고, 좌우편을 부축하며 하인이 물색 진한 모시 천의, 백저 전대(戰帶)고



를 늘어 엇비슷이 둘러메고 대모관자 통영것을 눌러 숙여 쓰고 청장줄 겹쳐 잡고...”

‘춘향전’ 원문에서는 변학도에 대한 직접적인 복장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고 다만 부임시 그 위엄을 나타내는 주변 호위 인물들의 복장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신관사또의 행차복은 도판 평안감사 환영도의 감사복장<그림 16>인 조선시대 대표적인 융복인 첩리에 흑립을 착용한 것을 변학도의 행차복으로 고증하였다. 흑립의 정수리에 옥을 단 옥로립으로 그리고 정령을 매단 것을 표현하였고 첩리에는 흥관대를 그 위에 병부를 매달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그림 16> 평안감사 - 평안감사환영도



<그림 17> 청첩리 - 한국복식문화사

(2) 복식 자료

(가) 입(笠)

입은 은 당상관은 자립(紫笠)에 패영(貝纓), 당하관은 흑립(黑笠)에 정령(晶纓)을 하였다.

입식(笠飾)에는 맥수(麥穗)를 꽃다가 후에 호수(虎鬚)를 꽃게 되었는데 입의 전후좌우에 장식으로 꽃는 흰빛으로 된 것이었다. 유물에는 세죽(細竹)에 끈으로 묶은 가느다란 수형(鬚形) 장식도 있다.<sup>31)</sup>

옥로(玉鸞)는 입에 장식한 해오라기 모양의 옥으로 된 정자 장식으로 유물중에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동일 조각의 형태가 하나도 없는 점이 특색이다.<sup>32)</sup>

(나) 첩리(帖裏)

첩리<그림 17>는 일명 철릭(天翼)이라고도 하였는데 허리에 주름을 잡아 상의하상식을 연결한 직령교임식 옷으로, 조선 중후기 사대부들의 융복, 표의, 중의로 널리 착용됐다. 여기에는 광다화로 된 띠를 띠었는데 품계가 높을수록 흥색대를 하였다고 한다.

첩리는 융복으로 사용될 경우 한쪽 또는 양쪽 소매에 단추를 달아 탈착이 가능하게 하여 유사시에 봉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첩리의 색은 <속대전>에 당상관이 남색(藍色) 첩리, 당하관이 청현색(靑玄色) 첩리, 왕교외 가동시(駕動時)에 흥색 첩리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기에는 잡색으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6) 역졸복; 암행어사와 함께 출두하는 상황의 복장

(1) 원문 자료

“ 역졸들은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푸른 베옷을 입고, 붉은 어깨띠를 두르고, 패랭이를 벗고 붉은 전립을 쓰고..”.



<그림 18> 경기 역졸복  
- 수원능행도



<그림 19> 구종의 복식  
- 평안감사 환영도



<그림 20> 전립  
- 대전향토사료관

푸른 베갯은 청침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붉은 어깨띠를 두르고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착용한다. 역졸복은 수원능행도의 경기 역졸복<그림 18><sup>34)</sup>을 보면 청침리에 청광대를 하고 전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며 원문에 있는 붉은 어깨띠는 평안감사 환영도의 구종의 복식<그림 19>에서 붉은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사 출도시의 역졸들의 복장도 청침리에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어깨에는 붉은 띠를 두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 전립(戰笠)

전립<그림 20>은 군복에 쓰는 모자로 모전으로 만들었으나 후에 사치하여 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술과 같은 상모가 달려있다.

모자의 형태는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패랭이와 유사하다. 모자는 둥글고 높게 만들었고 전은 넓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신분에 따라 공작 깃털·상모·정자 등을 꽂아 지위를 구분하였다. 지위가 높은 무관은 품질이 좋은 모(毛)로 만들고 매미모양의 밀화화와 밀화갓

끈을 달았는데 이러한 것을 특별히 ‘안올림방거지’라 하였다.<sup>35)</sup>

### III. 춘향전 남자복식 고증

<춘향전>의 시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조·정조의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16세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고증하였다. 복식의 형태는 원문에 충실하도록 하였지만, 당시의 복식 착용상황을 고려하여 신분과 상황에 맞는 복식을 고증하였으며 자료에 나오지 않는 형태와 색등은 상황설정에 따라 적절히 고증하였다.

#### 1. 고증 - 이몽룡의 편복 : 광한루로 외출하는 상황의 복장

이몽룡은 외출복으로 바지 저고리위에 받침옷으로 중치막을 입고 다시 그위에 세조대를 띤 도포를 착용하고 바지에는 통행전을 치고 있다.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발에는 대사혜를 신은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1> 이몽룡 편복

원문 복식 표현	복식 고증 재현
1. 궁초머기 머리	1. 흑립: 당시 이몽룡 나이가 16세 정도이므로 관례를 한 이후 상투를 튼 나이 이므로 사설 속의 내용과 달리 흑립을 쓴 형태로 고증
2. 도포	2. 색을 미색으로 고증
3. 흑사띠	3. 세조대: 사설에는 흑사띠로 표현했으나 흑립 끈 색과 동일한 관계로 청색으로 고증
4. 육분당혜를 착용한다고 했으나 이는 양반들의 고급가족신을 나타내는 단어로 실제로는 양반 남자들이 주로 신던 태사혜를 나타내는 말이었을 것이다.	4. 태사혜: 당혜를 신었다고 나왔지만, 당혜보다는 사대부나 양반계급의 사람들이 착용하던 태사혜를 신은 것으로 고증

2. 고증 - 이몽룡의 앵삼 : 장원급제 시 착용한 복장

허리에 학대를 두른 앵삼을 입고 어사화를 꽃은 복두를 쓰고, 목화를 신은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2> 이몽룡 앵삼

원문 복식 표현	복식 고증 재현
1. 어사화	1. 복두, 어사화
2. 앵삼	2. 앵삼
3. 학대	3. 학대
4. 신	4. 목화 : 사설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앵삼에는 목화를 신는 것이 보통이므로 목화를 신은 것으로 고증

**3. 고증 - 이몽룡의 변장 어사복 : 암행어사가 된 후, 남원으로 내려오는 상황의 복장**

어사또는 다 떨어진 흑립을 초사 갓끈으로 매어 쓰고 현 도포에 세조대가 아닌 무명끈으로 허리를 둘러매고 솔방울 선초를 단 살이 다 떨어진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3> 이몽룡 변장 어사복**

원문 복식 표현	복식 고증 재현
1. 파립	1. 흑립: 군데군데 망가진 갓으로 고증
2. 도복	2. 떨어진 도포: 재질은 비단이 아닌 값싼 재질로 고증
3. 무명끈	3. 무명끈
4. 솔방울 선초	4. 선초: 선초를 솔방울로 고증
5. 신	5. 짚신: 원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복식착용 상태로 보아 가장 값이싼 짚신을 신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고증

**4. 고증 - 방자복 : 이몽룡과 함께 광한루로 외출하는 상황의 복장**

방자는 외출복으로 머리는 길게 달은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린 위에 병거지를 쓰고 쾌자를 입고 미투리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4> 방자복**

원문 복식 표현	복식 고증 재현
1. 병거지	1. 병거지: 상모가 안 달린 평상시 가노들이 착용한 병거지 형태로 고증
2. 쾌자	2. 쾌자: 잘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라 하였으므로 평소의 바지 저고리 차림의 하인복 보다는 그위에 쾌자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
3. 미투리	3. 미투리: : 짚신에 비해 고급품인 미투리를 외출용으로 착용한 것으로 고증

5. 고증 - 변학도 복 : 남원의 신관사또로 부임되어 오는 상황의 행차복

변학도의 부임시 복장은 부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간편한 응복 차림이었을 것으로 보통 응복에서와 같이 모든 부속물들을 갖추어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화려한 정령(晶纓)이 달린 옥로립을 착용하고 첩리를 입고 홍색 광다회를 매고 그 위에 병부를 매달고 있으며 발에는 목화를 착용한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5> 변학도 복

원문 복식 표현	복식 고증 재현
1. 흑립	1. 옥로립, 정령
2. 첩리	2. 청첩리: 소매가 붙어 있는 형태의 첩리로 표현
3. 광다회	3. 홍색 광다회
4. 병부	4. 병부
5. 목화	5. 목화

6. 고증 - 역졸복 : 안행어사와 함께 출두하는 상황의 복장

역졸들은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청첩리를 착용하고 붉은 어깨띠를 두르고, 발에는 미투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6> 역졸복

복식 고증	복식 고증 재현
1. 전립	1. 전립: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으로 고증
2. 푸른 베옷	2. 청첩리: 푸른 베옷은 하졸들의 옷으로 고급인 청첩리로 고증
3. 붉은 어깨띠	3. 붉은 어깨띠
4. 신	4. 미투리: 짚신보다 고급인 미투리를 신은 것으로 고증

#### IV. 결론

이상으로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남자인물들에 대한 복식을 고증하였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몽룡, 방자, 변학도, 역졸 등의 복식을 원전에 충실하게 고증하였으나 조선시대 당시 실제 착용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복식과 아주 다르게 표현된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을 가하여 고증하였다.

<고증 1>은 광한루로 외출하는 때의 이몽룡 복장으로 전형적인 양반의 편복으로 외출복으로 바지 저고리위에 받침옷으로 중치막을 입고 다시 그위에 세조대를 띤 도포를 착용하고 바지에는 통행전을 치고 있다.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발에는 태사혜를 신은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원전에서는 일반 상사들과 같이 땀은 머리로 표현하고 있어 머리 모양과 의복의 모양이 안 맞게 표현되고 있다. 이 경우 이몽룡의 나이가 16세로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상투를 틀고 흑립을 쓴 모습으로 고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또한 신고 있는 신에 대한 묘사에서도 ‘육분당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고급 신인 가죽신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써 원래 ‘당혜’는 여자용 신의 명칭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양반 남자들의 신인 태사혜를 나타냄이 맞을 것으로 보여 태사혜로 고증하였다.

<고증 2>는 이몽룡이 장원급제시 착용한 앵삼으로 허리에 학대를 두른 앵삼을 입고 어사화를 꿇은 복두를 쓰고, 목화를 신은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3>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된 후, 남원으로 내려오는 상황의 어사 변장복으로 기본 복장은 일반 양반들의 것이나 복식의 재질이나 형태가 아주 가난한 선비의 복장으로 다 떨어진 흑립을 초사 갓끈으로 매어 쓰고 현 도포에 세조대가 아닌 무명끈으로 허리를 둘러매고 솔방울 선초를 단 살이 다 떨어진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4>는 이몽룡과 함께 광한루로 외출하

는 상황의 방자복으로 일반 양반가의 종복의 복장이나 좀 화려한 복장으로 머리는 길게 땀은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린 위에 병거지를 쓰고 쾌자를 입고 미투리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원문에서 표현된 붉은 상모가 건들거린다는 것은 과장된 모습으로 하인들의 병거지는 상모가 없는 상태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모가 없는 병거지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5>는 남원의 신관사또로 부임되어 오는 상황의 변학도 복장으로 머리에는 옥로립을 쓰고 첩리를 입고 홍색 광다회, 병부를 매달고 있으며 발에는 목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고증 6>은 암행어사와 함께 출두하는 상황의 역졸복으로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청첩리를 착용하고 붉은 어깨띠를 두른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남자들의 복장을 고증하였는데 춘향전은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작품으로 많은 복식들이 고증되었으나 원전에만 너무 충실하게 재현된 것도 있고 또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복장으로 재현된 것도 많았으므로 본 연구는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그 시대와 계급 상황에 맞는 새로운 ‘춘향전’에 대한 복식 고증 연구로써 고증 복장의 도판의 제시와 함께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새로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영화 신상옥감독 ‘성춘향’(1961)
- 영화 김수용 감독 ‘춘향’(1968)
- 영화 임권택 감독 ‘춘향년’ (2000)
- 드라마 KBS드라마 ‘성춘향’(1994)

- 2) 금기숙(1982)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춘향전」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지원(2002), 영화 「춘향전」의 복식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설선경(1994), 국문학총서 7 춘향전, 시인사, p. 145.
- 4) 이규봉(1986), 장본 춘향전에 나타난 한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3-14.
- 5) 궁초(宮綃)땀기: 궁초로 만든 땀기. 궁초는 비단의 한 가지.
- 6) 석황(石黃): 석웅황(石雄黃)이라고도 한다. 상류화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석이다. 산의 양자쪽에서 캔 것은 웅황이고, 음자쪽에서 캔 것은 자황(雌黃)이다. 순수하고, 잡물질이 섞이지 않았으며, 그 빛이 붉고 투명한 것이 좋은 것이다.
- 7) 성천수주(成川水紬):성천지방에서 나는 수화주(水禾紬). 수화주는 좋은 비단 한가지.
- 8) 세백저(細白苧):올이 가는 흰 모시.
- 9) 극상세목(極上細木):최고로 좋은 세목. 세목은 올이 아주 가는 무명을 말함.
- 10) 남갑사(藍甲紗):남빛 갑사. 갑사는 풀질이 좋은 얇은 비단을 말함.
- 11) 육사단(六紗緞):비단 이름.
- 12) 밀화(蜜花):밀과 비슷한 빛깔의 누른 호박의 한 가지.
- 13) 영초단(英 초緞):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를 말함.
- 14) 모초단(毛 초緞):날은 가늘고 씨는 굵은 올로 짠 비단의 한 가지를 말함.
- 15) 당팔사(唐八絲):중국에서 생산된 팔사. 팔사는 여덟 가닥으로 드리운 끈을 말함.
- 16) 쌍문초(雙文 초):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를 말함.
- 17) 유희경, 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29.
- 18) Ibid., p. 238.
- 19) 김영숙(편)(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p.401-402.
- 20) 역사인물초상화대전(2003), 현암사, p.601.
- 21) Ibid, p.595.
- 22) 유희경, 김문자(1998), Op.cit, p. 241.
- 23) 벌이줄: 물건을 버티어서 엮어매는 줄. 종이 연에 엮어매는 줄.
- 24) 초사(草紗):품질이 낮은 명주실.
- 25) 당:망건당. 망건의 윗부분.
- 26)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 27) 갓풀관자: 아교로 만든 관자.  
관자: 금·옥·뽕 따위로 만들어 망건당줄을 꿰는 고리.
- 28) 선추(扇鍾):부채 고리에 늘어뜨리는 장식품.
- 29) 이주원, (1982), 평안감사환영도의 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359, 364.
- 30) 김영숙(편)(1999), Op.cit., p. 198.
- 31) Ibid., p. 217.
- 32) 역사인물초상화대전(2003), Op.cit., p. 601.
- 33) 유희경, 김문자(1998), Op.cit., p. 236.
- 34) 송현주(1999), 수원능행도-도강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377-378.
- 35) 김영숙(편)(1999), Op.cit., p. 329.

(2005년 4월 6일 접수, 2005년 6월 8일 채택)